

## < 요약 >

1970년대부터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한 국제재난은 1990년 이후 매년 약 500건 정도가 발생하여 20만명 정도의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UN 등에서는 OCHA(Office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을 설치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기타 UNDP, UNHCR, UNICEF, World Food Program, World Bank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별로는 미국을 위시한 OECD가입 선진국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터키지진 그리고 작년 이란 지진시 정부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05년 개최예정인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의 선언서 초안에 의하면, 보다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다음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1) 공동체와 국가에 있어서 인명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난손실의 실제적 감소
- 2)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개발계획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재난위험 통합 고려
- 3) 강력한 제도와 매커니즘 그리고 체계적으로 재해를 제어할 수 있는 공동체 능력의 개발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역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도 이제 동 국제재난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제원조의 주요형태가 변화되는 이 시점에 인명의 살상이란 참극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도적 이념 하에 지원체제 구축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